

기억하는 어린이가 되어요(출애굽기 12:15-17)

15 “너희는 이제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다.

16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7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집파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설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령강림절 열째주일이자,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성령강림절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지요. 하지만 ‘평화·통일주일’은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통일주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지기를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잘 와 닿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백 년 전에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당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매우 힘들게 했어요.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일본군에 들어가게 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 각종 약재, 나무, 석탄, 철 등등 우리나라의 재산과 문화재까지도 빼앗아 갔어요.

이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고, 살기 힘들었어요.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떠나게 되요.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 평화를 위한 기회가 찾아오나 싶었지만 우리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쟁을 쉬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우리나라가 평화롭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아픔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런 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후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17절) 무교절이 무슨 날일까요?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켜야하는 무교절이 어떻게 시작 된 건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무교절을 지키며 자신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면서 자유와 평화를 빼앗겼다는 것과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 분이라는 것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되었어요.(무교절을 지키는 법, 그림 자료 1)

우리도 평화·통일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목숨까지 바쳤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듯이, 지난 날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 독립과 평화를 이루려 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 사람들을 보내셨어요.(인물 사진, 그림 자료 2-4)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고 계세요.(그림 자료 5)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여러분 주변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 갈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나라가 평화를 빼앗겼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평화를 되찾기 위해 일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화·통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예 시절을 기억하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시간들을 이겨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